

독감 아우성...광주·전남 초중고 환자 속출

큰 일교차에 미세먼지 덮치며 학생 환자 3779명이나 결석 늘고 기말고사조차 못 보는 학생 수백명 달할 듯

겨울철 일교차 큰 날씨와 갑작스런 한파에 미세먼지까지 덮치면서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방학을 앞둔 초중고에는 학생들의 결석이 늘고, 심한 독감으로 기말고사까지 치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병의원에는 치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려는 환자들로 복세통을 이루고 있다. 20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광주에서는 초등학교생 1096명, 중학생 680명, 고등학생 294명 등 모두 2070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전남에서는 초

등학생 758명, 중학생 524명, 고등학생 427명 등 모두 17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두 지역을 모두 합하면 독감 환자는 3779명에 달한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가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올 겨울 들어서만 무려 4차례나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등생의 경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였다. 교육당국은 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

다 최근 일교차가 크고 대기질이 나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독감에 걸린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독감 환자는 2학기 기말고사 시즌에도 속출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는 12월 2~3주차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광주에서는 이 기간 초등생 372명, 중학생 202명, 고교생 91명 등 665명이 독감에 걸렸다. 전남의 경우 이 기간 초등생 486명, 중학생 391명, 고교생 341명 등 모두 1218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독감 환자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해 통상 5일간의 등교 정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말고사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학생들이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

다 조언한다. 자주 손을 씻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려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야 하고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일컫는다. 감기는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지만 독감은 고열,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며 전신 쇠약감, 오심,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 등 전신 증상도 나타난다. 유행 시기는 늦가을에서 봄까지이고, 접촉에 의해서도 전파되지만 공기를 매개로 전파돼 유행이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일 광주시 남구의 한 아동병원에서 어린이 독감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근 겨울방학을 앞두고 A형 독감이 유행해 각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계엄군 국가유공자 보상금·연금 5·18 유공자보다 평균 5배 많아

1인 평균 2억2400만원 지급 5월단체 '계엄군 예우 중단해야'

계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510억원으로 1인 평균 4300여만원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 중 사망한 30명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이 중에는 최초 발표자를 포함해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군인들은 전사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더욱 아니다"며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훈·포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금 체납' 전두환 자택 수색 재산 압류

냉장고·그림 등 9점 압류 딱지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와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전 전 대통령 측 말을 듣고 물러났었다. 이날도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를 대며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강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허위정보로 부당이득' 필립에셋 본부장급 4명 추가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필립에셋 본부장급 4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총괄·서울·호남 본부장 등을 맡아 투자자를 유치해 무인이 투자매매를 하며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한 매출 중 16%, 해

당 본부에서 모집한 매출 중 1%를 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엄일석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필립에셋이 53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587억원에 사들인 다음 3767억원에 매도했으며,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가 최소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군, 추사작품 위작 논란 수사 요청

함평군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사작품 위작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함평군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알려진 군 소유 추사작품 중 일부의 위작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15년 6인의 전문감정위원들의 결과를 통해 진품으로 판단한 총 80점의 작품중(구매 30점, 기증 50점) 30점에 대해서 35억원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한국고미술협회 재감정에

서 총 80점 중 32점에 대해 위작 통보를 받는데다 이중 35억원을 주고 구매한 30점 중에서도 13점이나 위작인 것으로 통보받자 작품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감정평가에서는 진품으로 확정돼 이미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최근 감정평가에서는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됐다. 군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광주수영대회 이벤트 경품, 전범기업 계열사 제품 내걸어 시끌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D-200일 사전 기념 이벤트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인 니콘 카메라를 경품으로 내걸어 시민단체가 반발. ○...20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영선수권 조직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쿼즈 2개의 답을 댓글로 단 정답자 중 추천을 통해 2등 상품으로 니콘 콤팩트 카메라(1명)를 준다. ○...이 단체는 "미쓰비시 그룹은 일제강점기에 10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동원한 제1의 전범기업이다"며 "광주 세계수영대회조직위는 대회 홍보도 중요하지만 고차 카메라 한대 때문에 근로정신대 소송 상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야 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7100만원
- 현재 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지주 세라코지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소유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나 임대(부동산)에 접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부동산)에 접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형 단지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담당자
 - 태양광 영업 담당자
 - 태양광 영업 담당자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ONE-STOP TOTAL SOLUTION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세라믹/화학 분야 경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라 코	수정개발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공학석)	나주
	세라믹 (재료개발)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문의: 010-0800-2032, mcs@dscc.kr, jcs@scrc.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히공법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시공전 시공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퍼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퍼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독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